

신행 · 포교 소식

서울의 역사를 한번에 살핀다

시민행성 인문프로젝트 4월 29일부터 개최

실천적 인문공동체 시민행성은 이화여대 인문한국연구소와 공동으로 4월 29일부터 5월 1일 매일 오후 7시 종로 란스튜디오에서 '인문프로젝트 선: 서울시간'을 개최한다.

4월 29일 첫 강연에는 송태현, 이영미, 오창은 씨가 '소설로 읽고 노래로 듣는 한양, 경성, 서울'을 4월 30일에는 함돈교, 김수자 씨의 '서울의 얼굴들, 시작부터 지금까지-궁, 광장, 한강다리, 백화점'을, 5월 1일에는 오윤호, 김미상, 김애령 씨의 '서울이라는 이름의 도시' 강연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로 단체신청도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22회 길상화 장학금 전달식

맑고향기롭게, 4월 17일 개최, 41명 학생 대상 1년 학비 지원

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은, 길상사 주지)은 4월 17일 서울 길상사 설법전에서 제22회 길상화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길상화 장학금은 길상사 창건에 기여한 故길상화 보살님의 정신에서 따온 것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30여명 선정하던 장학생 수를 2015년 41명으로 확대해 선정했으며 1994년부터 2015년까지 555명의 학생들에게 총 8억여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덕은 스님은 "앞으로 지방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수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장학생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할지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으로 생활을 한다면, 살아가면서 오늘처럼 좋은 인연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장학증서 수여식 후 장학생을 대상으로 길상사 안내와 더불어 길상화 보살의 공덕비와 법정스님 진영각을 참배하는 일정이 진행됐다.

한편, 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는 법정스님이 창립한 순수시민모임으로 1994년 창립된 이래 22년째 이어지고 있는 단체다.

서울을 중앙모임으로 두고 대구, 부산, 광주, 경남 등 전국에서 뜻을 같이 하는 회원들이 장학사업을 비롯해 밑받침 지원사업 등의 사회복지 사업, 음악회, 강연회 및 각종 자연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공무원 불자들 해외성지 순례 진행

7월 25일 중국 문수성지 오대산으로... 선착순 접수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김상인)은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7박 8일간 중국 문수성지 오대산 일대로 제13차 해외성지순례를 진행한다. 중국 3대 석굴인 운강석굴을 비롯해 현공사, 용흥사, 임제사 등을 둘러보는 이번 성지순례에는 공불련 회원 및 가족 35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공불련 측은 "불자로서 수행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다짐하는 자리"라며 "공무원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02)739-1080 노덕현 기자

불교명상지도자 본격 활동 나선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4월 21일 창립총회 거행

불교명상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불교계를 대표하는 명상지도자들이 모여 만든 한국명상지도자협회(회장 용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4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명상지도자 협회 창립총회 및 기념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장 용타 스님(행복마을 이사장), 금강선원 주지 혜거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회장 인경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등 20명의 불교명상지도자 및 포교원 인증 명상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표하는 명상지도자를 비롯한 비대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창립총회에서 지원 스님은 격려사에서 "명상포교는 21세기 중요한 포교대안이라 생각한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애플 등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상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SK나 삼성 등 우수 기업들도 명상을 직원연수의 과정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이제 명상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산업, 예술, 심리, 건강, 환경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4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명상지도자 협회 창립총회 및 기념법회'를 거행했다.

오는 7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명상 저변 확대 좋은 기회"

불교계 명상 인재 네트워크 구축

국가 공인 자격증 발급 추진

이어 스님은 "오는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 학교에서 발달 수준에 따라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명상의 저변 확대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명상포교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명상과 인성 프로그램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지평,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할 때,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큰 획을 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지평,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할 때,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큰 획을 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회장 용타 스님도 "협회차원의 모임 자체가 중요하다"며 "발교 설례는 마음으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회장인 인경 스님은 이날 창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스님은 "앞으로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명상의 실천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고,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능한 명상 지도자를 양성할 것이며, 또한 명상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대 사회가 요청하는 인성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온 명상 지도자들이 협회에 동참하여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 연대하여 시대적 과업을 함께 실현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지난 해 5월에 열린 '명상포교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포교정책 연찬회와 10월 구글 엔지니어 차드명탄을 초청해 진행된 '창조경영을 위한 명상 포럼'을 통해 명상포교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한 명상전문가들에 의해 발족했다. 협회 회원들은 지난 해 11월 '불교명상 지도자 간담회'와 지난 2월 '불교명상지도자협회 발족식'을 거치면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구체적인 계획과 틀을 잡아나갔다.

향후 협회는 △불교명상 지도인력 육성 △불교명상 대중화 △인성교육 지도자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세 가지 큰 틀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행사에서 인경 스님은 "불교명상 지도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교명상 지도인력 배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 불교명상 지도인력을 육성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공인 통합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또한 국가로부터 인성교육 전문기관 인증체제를 마련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회원단체들과 연구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협회장 용타 스님이 '동사섭의 역사와 명상 지도자의 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었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명상 상담, 현대인 심리치료에 큰 몫"

불교상담개발원, 22일 창립 15주년 세미나 개최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4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명상과 상담의 실제'를 주제로 창립 15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명상과 상담의 연계를 통한 심리치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4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명상과 상담의 실제'를 주제로 창립 15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은 '명상과 상담'을 주제로 기초발제를 진행했다. 용타 스님은 "종교의 사명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불교 역시 상담 문화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45년 교화 생활이 아랍로 상담 그 자체라 할 만큼 '상담적'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불교 상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불교 상담에 대해 △범

초월적 자기이해 바탕둔 명상

마음의 긍정적 요소 배양해

중생성 △방편의 개방성 △정체성 △상담 전문가 저변 확대를 발전 방안으로 제안했다. 용타 스님은 "동서고금의 모든 문화, 인문학, 사람 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모든 가능성이 바로 불교상담의 소재가 되고 자료가 돼야 한다"면서 "불교의 목적이 범중생과 존재의 이고득락이기 때문이다. 불교 상담은 운신의 폭이 불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교 사상을 기저에 두고 상담을 하는 전문 상담가가 양산돼야 한다"면서 "범중단적으로 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전국 사찰 주지 스님들을 중심으로 상담가 인증서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박성현 서울불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4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명상과 상담의 실제'를 주제로 창립 15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대학원대학교 자아초월상담학과 교수가 '명상의 심리치료적 이해'를, 김재성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교수가 '명상과 상담 사례발표- 자애명상을 중심으로'를, 김열 권 위빠사나부다선원장이 '명상과 상담 사례 발표- 위빠사나 수행원리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박성현 교수는 "명상을 기반한 심리치료

는 마음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긍정적인 요소를 배양시킴으로써 심리증상을 해결하는 긍정심리학적 지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날 제8회 불교상담심사사 자격고시에 합격한 2급 110명, 1급 14명, 전문가 자격 2명에게 자격증을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제1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 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 교육과정 -

- 기본의식(3개월단기)
 - 도량석, 종송, 향수하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사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 중급과정(범음, 범패)
 -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중39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 작법: 천수바라, 도량계, 사다리니작법
- 사물: 북, 태징, 목탁, 요령
- 강주스님: 일관

보경사 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스님, 출가에정자, 재가불자
- 제출서류: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 사진 3매
- 개강일시: 2015년 5월 7일(목)
- 수 업: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3번지
- 신청문의: (054) 262-1117(보경사 중무소)

※ 숙식 제공 가능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30명(선착순)

◆ 원서접수: 2015년 4월 中

◆ 개강일시: 2015년 4월 中, 매주(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간 30분)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임성도 교수)

-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 ② 성명학: 초급, 상급(각 3개월)

▶ 개강일시: 2015년 4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답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